

ICDC WEEKLY 2018년 36주차·통권 제28호 | 메르스 특집

## 두 번째 메르스의 유입과 교훈



**김진용** 단장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2015년 중동의 한 국가에서 들어온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낯선 병원체에 우리나라는 186명의 메르스 확진 환자와 38명의 사망자를 기록하며 많은 혼란과 불안을 가져왔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의 전파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은 우리의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빈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그 후로 뼈아픈 반성과 함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인 2018년 9월 8일에 드디어 **두 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가 국내에 유입**되어 현재 접촉자들을 조사 중입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총 7명의 밀접접촉자와 68명의 일상접촉자(2018. 9. 12. 현재)에 대해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는지 매일 확인 중이며, 증상 발생 시에 바로 이송하여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음압병동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준비된 대응이며 3년 전과는 남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에 본인의 중동 여행력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였고, 또한 의료기관에서도 미리 준비한 선별진료실에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진료를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노출자가 최소화되었던 점입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를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한 것도 적절합니다. 입국당시 호흡기 증상이 없이 소화기 증상(설사)을 주로 호소하여 검역과정에 걸러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기는 하나 입국 시 선별검사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의 안전장치들(로밍데이터를 통한 여행력 확인 및 안내문자 발송, 의심환자 의료기관 방문 자제 및 지정의료기관으로 이송 등)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할 때 국내에 전파되는 위험이 최소화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시민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바이러스 감염병은 노출 후 질환 발생까지 일정기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잠복기”라고 부르며 메르스는 2~14일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동 여행 후 최대 2주까지는**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처럼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할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으로 전화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에 배정을 받아 진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중동을 여행한 적이나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적이 없는 분들은 불필요한 메르스 감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에서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가 토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여행력이 없는 분들은 전파될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안전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중동 국가 여행 후에는 위의 사항을 꼭 잊지 맙시다. 앞으로도 있을 세 번째, 네 번째의 메르스 유입사례가 더욱 더 안전하게 진단되고 치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